

너, 군대 왜 가니?

군대에 관한 20대의 솔직한 대화

일 시 : 2009년 9월 29일 화요일 늦은 7시

장 소 :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원일한 홀

전역자, 여성, 입대예정자, 그리고 병역거부자가 모여
우리 사회에서 '군대'가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왜 군대에 가는지
도발적이고 발칙한 20대의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 군대 왜 가니?"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 전쟁도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진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혹은
평화를 얻기 위한 전쟁을 주장하지만 어떠한 전쟁도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없으며,
어떠한 전쟁도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전쟁에
반대합니다."
-하동기 소견서 중

"한국에서 신성시되는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조사받고, 감옥에 갇히고,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의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소 후에도 '병역거부자'라는
낙인은 따가운 시선과 함께 줄곧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한동안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병역을 거부한다고 무엇이 바뀔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며 어떻게든 회피할 변명을 찾고만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저는 병역을
거부합니다."
-백승덕 소견서 중

사회 : 용락
연세대 언론출판협의회 의장

매널

정종훈 (연세대학교 교목)

박경태 (경제학과 4학년)

유나 (국문과 3학년)

최하늘 (철학과 2학년)

백승덕 (병역거부자, 졸업생)

하동기 (병역거부자, 신과대 4학년)



주최 : 병역거부자 백승덕 후원회, 병역거부자 하동기 후원회

후원 : 전쟁없는 세상, 제 46대 신과대 학생회, 연세 언론출판협의회, 노동이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는 학생모임[살맛]

< 토론회 순서 >

- 7:05 - 7:10 / 인사말(5분)
- 7:10 - 7:20 / 사회자 (10분)
 - : 토론회 취지와 의미, 패널들 소개, 토론방식 설명
- 7:20 - 8:20 / 패널 각 10분씩, 총 60분
 - 기조발제 : 정종훈 교목(10분)
 - 하동기 (10분) : 군대, why가 실종되어선 안된다.
 - 박경태 (10분) :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한국의 군대문화, 군대에 대한 생각
 - 유나 (10분) : 군대문제에서는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여성의 시각과 생각
 - 최하늘(10분) : 군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 백승덕 (10분) : 군대는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가?
- 8:20 - 8:40 / 각 패널들끼리 준비한 질문과 대답
- 8:40 - 9:00 / 플로어 토론
- 9:00 - 9:15 / 마무리 및 뒷풀이

< 목 차 >	페이지
1. 군대, why가 실종되어선 안된다	1
2.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군대문화와 군대에 대한 생각(박경태)	3
3. 군대문제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시각과 생각	5
4. 군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8
5. 군대는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가?	10
6. 메모 및 질문지	13

군대, why가 실종되어선 안된다

-하동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혹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기부터 대다수의 남성들은 군대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군대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편한지에 대한 고민은 군대를 가기 직전까지도 계속되고 2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군대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군대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존재할지 몰라도 '군대'에 대한 고민은 그리 크지 않다.

병역거부가 어느 순간 이슈가 되면서 고등학교에서도 역시 논술 주제로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만나보았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은 자신의 병역의 문제와 병역거부의 문제를 연결시켜 다루기보다 그저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으로, 하나의 논술 주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직·간접적으로 만나본 군대라는 공간은 '왜'라는 질문이 실종된 공간이다. 자신이 왜 지금 이 곳에 와있는 지도, 자신이 왜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해주지 않고 그저 '까라면 까'의 규율만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일 뿐이다. 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단순화된 상명하복의 체계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잘라내는 것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사회에서 이런 생각이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미 군대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문화 역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군대에서 정립한 사고의 부재 상황을 이어갈수록 '개념 있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군대를 다녀온 이야기들은 20대가 모인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 중 하나이다. 인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필자에게 해주는 충고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빨 수 있으면 빼." 이 말을 하는 친구들은 물론 '자신의 군대 생활이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군대라는 곳에서 느낀 고통이나 불안감 등이 전해져오는 느낌을 받았다.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그 시간동안 군인들은 분명히 '일' 하고 온다. 훈련도 받고 대민지원활동도 하며 군에 필요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기 어려웠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사람도 꽤나 많이 있다. 이것은 자신이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조심스럽게, 이는 군대에 대한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본다.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금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군대를 가는 순간부터 생각하기를 멈추어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 군대에서도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지 못하고 그저 시키는 일이니 해야 한다는, 군대는 원래 이런 곳이라는 의식만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가 병역을 신성시하고 병역거부자를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왜 군대에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행위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을 갖지 않고 무작정 군대에 가게 된다면 폭력적인 상황과 자신의 존재를 부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 적응해버리던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대해서, 입대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군대에 관한 사전 지식과 고민을 가지고 군에

입대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야 하는 훈련과 해야 하는 일이 자신의 생각과 합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병역 임무를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군대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변화이다. 국가는 자신의 고민과 판단에 따라 병역을 이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대에서의 훈련 역시도 자신의 판단과 상황에 근거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이야기가 군대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면 군대의 활동에 무조건 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병역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한꺼번에 일어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저 '국가에서 부르기 때문에' 라는 근거는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시니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자신이 군대를 가야 하는, 혹은 가지 않아야 하는 명확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 고민들이 하나씩 모여 국가가 개인의 선택과 인권을 존중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예수의 걸음을 따라(club.cyworld.com/jxshine) - 병역거부자 하동기 후원회

병역거부자 하동기 후원회에서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신학과 07학번 조창근입니다.

저희 후원회는 2009년 5월 말부터 시작하여 하동기씨의 병역거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기독교인으로 4번째 병역거부자인 하동기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회 약력 및 하동기씨 경과보고

- 5월 29일 입영통지 전화 - 6월 15일 입대하라는 내용
- 본인 선택으로 입영일자는 7월 7일로 연기
- 7월 7일 병역거부자 신분이 됨
- 7월 13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 7월 17일 관악 경찰서에서 경찰조사
- 8월 11-15일 후원회 내부 병역거부와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
- 8월 21일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찰조사
- 9월 25일 재판과 후원의 밤 행사 : 재판 결과 검찰측에서 징역 1년 6월 구형
- 10월 21일 결심공판 예정

후원회의 운영은 전적으로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후원금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이월드 클럽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원회는 기자회견과 재판, 후원의 밤 행사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앞으로 하동기씨의 징역생활에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범상한 나라가 아닌지라(?) 징역생활에도 영치금 등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그 밖에도 면회일정 조정과 읽을 책 발송 등의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징역 생활 중에도 면회와 편지 등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바른 길은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길은 누군가 가야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하동기씨를 후원회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항상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회 계좌

우리은행 1002 040 023501 예금주 : 조창근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군대문화와 군대에 대한 생각

-박경태

들어가기에 앞서

전역한 남자로서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다.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 범위와 내용이 개인들의 직간접 경험에 의해 극명하게 나뉘게 되고, 또 남자들에게는 신성한 의무이자, 진정한 남자 탄생의 통과의례로 여겨 지기 때문이다.

미리 밝혀 두자면, 나의 2년 3개월 동안의 공군 병으로서의 군생활은, 전역 후 영웅담을 늘어놓을 만하게 다이나믹하지 않았으며, 다른 전역자들이 고생 안하셨군요라고 말하더라도 울컥할 수준의 것들은 아니었다.

앞으로 내가 풀어놓을 이야기들은 내용과 관계없이 '나의 편안한 군생활'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필요한 최소의 것만 포함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군대와 개인, 그리고 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누구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해보려 한다.

남자는 전역하고 나면 다 복학생으로 불린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롭지 않아보이는 새로운 얼굴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장면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냈길래,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도 친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걸까?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시간과 관찰이 필요없이 그들 대부분이 전역한 복학생임을 알아 챌 수 있다.

군대를 갔다온 남성들은, 전역 후, 군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어느 때 보다 밝고 친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게 된다. 입대 전에는 그렇게도 서로 다르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전국 방방 곡곡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곳에서, 육해공에서 물리적으로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네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네 이야기라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알고 보면 다 자기 자랑이지만)

위의 상황을 통해서 알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군대는 육해공 가릴 것 없이 조직 체계의 정립이 훌륭하게 되어있는 정예군대라는 사실이고(판단은 개인의 몫), 또 다른 하나는 군복무기간 동안 똑같은 혹은 유사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속에서 개개인의 다양성은 존재가치가 가장 낮은 것들 중 하나 이다. 생존을 목전에 두고, 살아남는 것 말고 필요한 것이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도 의미가 없고, 개개인의 생명도 전체의 생명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것임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판단인가 라고 묻는다면, 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라는 객관식 문제 보기 중 하나라면 나는 답으로 정하고 OMR카드에 옮길 것 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진정한 전시 상황의 군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성의 파괴를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복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서 나오나?

군대에서 뼈저리게 배우는 것은, 윗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도 때도 없이, 심지어 잠을 자는 순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휴가를 나와서도 결코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환경에 2년 동안 노출된 개인은 우선, 상황에 적응해서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런 노력들은 윗분들의 의도대로 행동과 의식 깊숙이 자리잡게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원시적이고 유치한 방법(잠을 못자게 한다던지, 물을 못 마시게 한다던지, 씻지 못하게 한다던지, 때린다던지, 혼자서 할 수 없는 육체노동을 시킨다든지)으로, 선임병의 마음에 들때까지 '고참이 시키면 뭐든지 한다'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의 무서움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군인들은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결과를 얻게 되는데, 내가 편안해지려면, 일단 시키는거는 뭐든 어떻게든 일단 해야하고, 내 짬이 어느 정도 되면 후임에게 똑같이 시키는 걸로 보상받는 시스템을 받아들

이게 된다. 이런 과정중에서는 각자의 인격과 개성은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즉, 개인의 인격체가 무너지고 자신보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나 부적합하나만이 한 인격체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 버린다.

이런 생각을 2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전역을 했다. 그럼 자연히, 대학교를 졸업할 날짜가 다가오고 취업을 준비한다. 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주된 주제는 군대에서와 같이 생존이 될 것이고, 사회에서 군대의 선임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그나마 군대에서는 선착순이라는 나름 정당한 기준이 있지만 사회에서는 그보다 합당한 기준은 없다. 자신이 'Untouchable One' 이 되는 수 밖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 또 회사라는 조직속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생존은 명맥을 이여가게 되고, 김병장이 김부장으로 바뀌었고, 과자를 못 먹게 하고 잠을 덜 재우는 대신, 가족의 생계를 직장 상사에게 결제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속의 군대

가끔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여자 친구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직장내에서 고민하고 고생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내가 군대 있을 때 누군가에게 하소연했던 장면과 너무나 흡사하다. 연봉 수천을 받는 직장과 군대를 비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다 그런거라고, 적응하면 될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이야기 또한 진리가 아니지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친구가 그나마 고생을 덜 할 방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곤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라는 곳은 군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혹은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사회집단에 존재하는 통치 메커니즘을 배우는 최초 학습장이라는 것이다. 자신보다 하루라도 먼저, 혹은 한계단이라도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에는 복종을, 하루라도 늦게, 혹은 낮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것을 말이다.

이와 같은 선점과 결핍의 메커니즘에 빠진 사회에서, 선점한 자들은 자신들이 선점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선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선점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던지게 된다.

사회 시스템에 접근권한이 있는 기득권들은 디펜딩 챔피언이 겪어야 할 피곤한 선의의 경쟁을 피하게 위해서 경쟁이 무의미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쓰는 동시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순응할 경쟁력없는 매치업 상대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 학벌, 돈, 집안, 직업 등 으roman 사람의 인생이 평가받는 시스템이 가장 두드러지고 보편적인 예다.

그에 반에 선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개천의 미꾸라지들은, 시스템의 불합리함을 자신이 넘어서야 할 인생의 도전으로 생각하여, 용이 되고자 좋은 학벌, 많은 돈, 인정 받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

위에서 언급한 기득권의 노력과 미꾸라지들의 노력은 사회,문화, 경제적 빈부격차로도 표현 할 수 있는데,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도 빈부격차는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일제 치하에서 부터, 현재 총리 인준에 까지 기득권 획득에 사용한 방법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개인적으로 군대라는 조직을 반대하지 않는다. 군대없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군대조직이 자신만의 역할영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모든 관계정립의 도구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는 반대한다. 대한민국의 청춘은 그곳에서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잃고, 종종 사랑도 잃게 된다. 그리고 군복무적합을 판단하는 기준이 신체건강함 하나 밖에 없다는 것도 올바른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당장, 대한민국 사회의 한 조직체로서 건전한 군대가 되기 위한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있고 요원한 것이고 생각한다. 기득권이든, 미꾸라지들이든, 이에 대해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앞서 말한 '군대=잘못된 사회 조직 운영 체계를 배우는 전초기지' 라는 인식은, 내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죄수로서의 군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진 실체조차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의 행동대장 짬이 되는 것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들, 한번쯤은 생각해보도록 하자. 난 왜 그렇게 상대방의 나이, 전공, 그들의 아버지를 궁금해 하는지.

군대문제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시각과 생각

-유나

1.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 이야기로 글을 시작해보겠다. 나는 이 자리에 '여성'패널로 나왔다. 왜 나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군대 문제를 이야기 하게 되었는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특징이라는 것들을 대체로 지니고 있기에, 여성의 삶으로 간주되는 경로와 유사한 삶의 자취를 밟아 왔기에 나를 다들 '여성'으로 간주하지만 사실 누가 '여성'인가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남성스럽다고 여겨지는 겉모습과 옷차림, 행동을 하지만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 여성의 옷을 즐겨 입는 사람, 여성스러운 옷차림과 행동이 익숙하지만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고 생물학적으로도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갖추고'있으나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여기는 사람. 이들 중 누가 여성인가? 여성이라는 단일한 이름으로 사람들을 묶을 수 없는 또 다른 경우들이 있다. 여성이면서 아이가 있는 사람, 유치원에 다니는 여성, 아무리 탈탈 털어도 돈이 없는 여성, 동성의 애인이 있는 여성들을 '여성'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칭하기는 아무래도 무리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여성' 패널로 '여성의 시각과 생각'을 말하겠다고 나와 있는 나는?

병역거부와 관련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질문으로 발제를 시작한 이유는, 군대문제를 '여성'이라는 단일한 주체의 시각과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이다. 이 발제를 하는 나는 어떤 여성을 대변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위에 적은 것처럼 여성이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복잡한 현실 속에서 지금 이 발제의 주제로 남겨진 '여성의 시각과 생각'은 얼토당토않다. 그러나 사회는 나를 '여성'으로 간주한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볼 때 여성인지 남성인지부터 판단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이 생각하기에 '군대도 못 갔다 온' '여성'의 군대에 대한 생각은 여러 방식으로 '제외'된다. 이 상황이 현실임은 자명하기에 어설피게나마 '20대 대학을 다니는 여성' 중 1인으로 나를 생각하고, 글을 써나가겠다.

2.

한국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각기 다른 역할 수행을 요구받는다.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의 구분, 그 틀에 맞는 행동과 사고를 할 것을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의 공간에서 교육받으며 그 틀을 벗어 날 경우 여러 낙인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써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국가/사회는 성별구분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는 역할수행을 군대라는 공간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한다.

군대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이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총 들고 유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밥을 짓는 사람/다친 군인들을 치료하는 사람/ 군대 행정을 처리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등등 현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역할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우 뛰고 훈련 받고 총 쏘는 군인만 있다고 한동안 착각하고 살다가 내 주변 남성들로부터 군대 사회의 구성을 전해 듣고 나서야 군대가 어떤 주체들로 꾸러질 것이라는 나의 생각 역시 언론과 국가에 의해 조작된 부분이었던 걸 인식했다. 이러한 조작은 군대를 국가를 지키는 힘 센 '남성들만의 조직'으로 여기게 하는데 한 몫 한다. 군대에서는 강한 힘과 무한한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약하고 힘을 써보지 못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에 의해 요구되는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성별을 기준으로 나뉘는 것은 살아가면서 교육 받아 온 성역할을 '논리'인 양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남자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 여자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 남자이기 때문에 가는 군대라는 공간이 생김으로써 그것이 원래 그런 것처럼 여겨진다. 국가

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강화하는 재교육의 장으로 군대는 활용된다.

그리고 재교육의 대상은 군대라는 곳으로 모이는 남성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는 성역할을 공고히 하는 작업을 통해 여성의 활동범주를 제약하고, 여성이 감히 발언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한다. 여성의 시선과 생각이 군대문제에서 배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점이라 생각한다. 여성이 국가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 머물러 있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매우 교묘하게 작용한다. 그들은 드러내놓고 군대 사안에 대한 여성의 발언을 폄하,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의 국민이라면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여성이 그 대신 수행해야 할 역할들을 마련해 놓는다. 국가를 지키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에서 2년을 보내는 군인들을 위로하는 여성상이야말로 국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여성이다.

국군 장병을 위로한답시고 여는 행사들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두 가지로 고정된다. '섹시'한 몸짓으로 공연을 하거나 '엄마'로서, '애인'으로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군대에 가지 않더라도 여성이 군대문제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사회가 군대라는 공간을 통해 만드는 군사 문화와 여러 규범들은 군대 바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직접당사자라 여겨지는 남성을 포함,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군대를 통한 재교육을 시행하는 주체들은 이 영향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놀아나는 건, 군대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 구도로 논쟁 아닌 논쟁을 벌이는 우리들이다.

3.

20대 여자 대학생인 내게 군대가 존재감을 증명하는 통로는 사람과 문화이다. 내 주변 동기들, 선배, 후배 모두 군대는 당장 닥친 문제이기에 밥 먹고 술 먹는 자리에서 군대 이야기가 안 나올 때는 드물다. 군대를 언제/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소재인데, 딱 한 번 이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논쟁이 있었다. 내 생각에 군대는 '될 수 있으면 피할 곳 ,못 피한다면 제일 편한 곳을 노릴 곳' 이다. 대체로 내 주변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남자가 인간이 되려면 군대에서 쓴 맛을 봐야지.'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이들은 없는데, 이런 내 생각에 반박을 한 '남성'은 미국 유수의 대학을 다니다 군 입대 문제로 한국에 들어 온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군대는 국가 방어,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집단이기에 이 사회에서 군대가 필요하다면 개인주의적인 생각에 기반 하여 군대를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행태들은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더라. 군대를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웬만하면 편하게 갔다 오라고 주변인들에게 권하는 내 생각은 군대를 힘들게 다녀 온 사람들이 많이 변해 온다는 내 나름의 통계에 기반하고 있다. 뻑센 훈련일정을 소화시키기 위해 군대에서는 군인들에게 '자부심'과 '남성연대의식'을 강조한다.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훈련이 군대에서 필요 한 이유는 군인들이 이런 훈련으로 거듭나야 나라가 지켜지고, 이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고를 세뇌시킨다. 그리고 그런 세뇌작업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어서 군대를 다녀 온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남성연대의식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아마 군대에 다녀와서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여자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하는 남성들에게 ' 다 컸다.' '인간되었다.'고 하는 모양인데 내 생각에 이건 국가/사회가 원하는 남성상에 물든 모습으로만 보인다. 이렇게 힘과 남성적인 것, 누군가를 지키는 주체로 자신을 상정하는 이들과의 대화는 상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관계 맺기 자체가 평등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기반 하여 군대는 피하려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¹⁾

그런데 아무리 내 주변 사람들을 최대한 군대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려해도 군대문화는 이런 저런 방식으로 내 삶에 개입한다. 아주 흔히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군사문화의 사례로는 'FM'이 있다. 관등성명을 호명하듯이 자신의 소속을 밝히는 자기소개 'FM'은 그야말로 대학에서만 맛보는 신문화 아닌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팔을 높이 솟구치며 모두가 알고 있는 내 소속을 밝히는 것이 나를 소개하는 방

1) 여기에서 돈 써서 피해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다. 군대를 장려하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스스로 군대를 회피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회피하려고 하면 충분히 회피 가능한 현재 군입대의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이야기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돈 없으면 군대 가야하는 현실이 슬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돈 써서 군대 안 간 사람들에게 너도 가라고 욕박지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나도 했으니, 너도 해라방식은 그저 현재의 군대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본다.

식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에 오면 어렵히 다 그렇게 하나보다 싫어서였다. 그러나 어렵히, 원래 그랬나보다 라는 생각은 그 행위 뒤에서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숨긴다. 군대에서의 관등성명방식이 대학 내 자기소개방식으로 공고히 된 데에는 대학 문화를 주도하는 주체들이 대부분 남성, 특히 군대를 다녀 온 남성들이었기 때문이다. 2009년 현재의 대학문화가 8,90년대와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단과대 반과 과에서 오래 살아남고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이들은 남성이다.²⁾ 그런 이유로 나 역시 새내기 시절 FM을 수도 없이 접했고, 학생회 활동을 하던 시절에는 단과대 운영위원들에게 FM을 요구받기도 했다. 이렇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대학 생활에 군대는, 군사문화는, 자신의 존재감을 뚜렷이 인식시키고 있다.

4.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싸이월드 광장에서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그저 군대사진 한 장짜리일지라도 결국 리플들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광경은 지긋지긋하게 익숙하다. 그럼에도 여기 나는,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모였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군대문제를 남 일로 생각하거나, '남성'이라는 이유로 군대문제에 방어적일 필요 없다. 사실 사회에서 말하는 지배자적 위치에 있지 않은 이상 군대와 관련 된 사안에서는 성별 따질 것 없이 모두가 제외되고 있다. 군대에 강제로 징집되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고, 군대 내에서의 폭력과 기합이 군대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군대문화에 '남성'의 시선과 생각은 정말 반영되고 있는가. 피지배자는 자신이 딛고 있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 정도와 방향, 모양들은 조금씩 달라도 군대문제에서 제외당해 왔다. 군대는 피지배자들의 평화에 대한 바람과 의지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다.

진정 군대, 군사문화, 병역제도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누구인지, 제외하는/되는 위치는 무엇에 따라 나뉘는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입을 열어 그 고민을 나눌 때이다.

2) 복학생의 경우 이제는 군대 갔다 오면 설 자리가 없다고, 예전과 같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여전히 과/반방에서 교환 학생다녀온 여학생보다 군대 다녀온 남학생이 더 편하게 자리하고 술자리, 후배들과의 남성연대를 통해 적응하는 것이 훨씬 수월함을 부정할 수 없다.

군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최하늘

0.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할 것을 제안 받고 승낙한 뒤,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토론회의 키워드는 군대.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다. 너무도 폭력적이었던 예전 고등학교 시절의 씩씩한 기억. 내가 졸업한 진성 고등학교는 여타의 일반적인 고등학교들과는 다른 점이 상당히 많았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군대에서나 볼 수 있는 방식의 학생 통제 체계였다. 나는 3년 동안, 2층짜리 철침대가 뽁뽁하게 들어찬 기숙사에서 40명 정도의 학우들과 같이 잠을 잤다(한 방에 40명이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이부자리를 정리한 다음 운동장에 나가 줄을 맞춰 구보를 했고, 기숙사 사무실에 불 일이 있을 때면 'x반 y번 누구누구 용무 있어 왔습니다.' 라는 구호와 함께 경례를 붙였으며, 밤에는 다시 기숙사의 침대위에 곳곳이 앉아 점호를 했다.

졸업하고 대학에 와서야 그것이 군대에서의 생활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다. 황망하게도 다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구보가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힘겨움의 강도 면에서 군대와 비교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 때 학교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었다. 수업시작이 9시인데 어째서 날마다 6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몽둥이로 맞아야 했는지, 어쩌다 급한 일이 생겨 점호 때 자리에 있지 않으면 무슨 세상 무너지기라도 한 듯 온갖 훈계를 들으며 생활교육이라는 기합을 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저 학교의 체계가 그랬고,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 살았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였다. 그때의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생활에 적응해냈지만, 그로 인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여긴다.

굳이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방식의 통제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때의 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 그저 사전적인 정의 밖에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학교가 싫었다. 처음에는 사람을 소나 돼지처럼 길들이려는 그 칼 같은 체계에 따라가지 못해 힘들었고, 적응한 뒤에는 언제나 힘없이 흐느적대는 듯한 그 무력감에 질렸다. 그 때 거기서 나는 비참한 스스로를 증오하지 않았나 싶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은 거기에 노출된 사람에게 자괴감을 씹게 만들고, 내부로 향하는 분노의 칼날은 스스로를 상처 입힌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학교가 싫고, 그런 체계가 싫다.

1.

그렇지만 그토록 경멸하고 비판했던 그때 그 학교와 완전히 동일한, 아니 더 심할 것이 틀림없는 군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이제 군대에 가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그 어떤 진지한 고민도 해보지 않았다. 피하고 싶지만 그저 때가 되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 그저 육·해·공 중 어디에 지원할까, 혹은 사병으로 아니면 장교로, 그도 아니면 카투사, 의무소방, 방위산업체, 대학원 등등 일단은 무조건 군대에 가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만 관심이 있었다. 정작 군대와 관련한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항상 시야 밖에 있었다.

어째서 대한민국에서는 군대라는 공간을, 당연히 입대해야만 하는 곳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생각도 떠올릴 수 없는 것일까. '군대를 꼭 가야만 하나?', '군에 입대하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는 없을까?', 나아가 '국방의 의무란 무엇일까, 병역의 의무는 또 무엇일까?' 와 같은, 어쩌면 당연히 떠올려야만 하는 의문들이 대한민국의 병역 대상자들의 머리속에는 없다. 꽃다운 20대, 적게는 1년 9개월에서 길게는 3년 6개월까지 묵묵히 자신을 죽인 채 인간을 인간으로 대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인내해야 한다는, 너무도 중대한 문제이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은 그저 '싫지만 가야 하는 곳' 정도에서 그칠 따름이다.

이상하다 못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휴전체제 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군대에 가야만 한다.' 식의 논리조차도, 그것이 '입대 아니면 교도소' 라는 극단적인 이분

법의 지반위에서 내려진 결론인 한 여전히 무언가 미심쩍다. 불안정한 국가 안보를 위해 군대를 유지할 현실적 필요성이, 군대가 아닌 다른 형태의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인식을 정당화 하지는 못한다.

나는 올해 초, 양심적 병역거부를 마음먹은 한 선배와의 진지한 대화에서 이런 병적인 인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선배는 종교적 이유에서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윤리적인 신념에 근거해서 병역 거부를 결심했다. 물론 이번 백승덕 선배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개념적 구분이 언제나 정확하지는 않다. 이런 저런 이유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지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역시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각각 천차만별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하여 생각해 볼 것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비판하든 옹호하든 간에 보다 필요한 태도는 군대에 관련한 생각을 할 때 좀 더 다양한 다른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 복무, 병역 거부, 병역 의무, 국방의 의무, 젠더 문제, 왜 하필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 '무엇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조금도 떠올리지 못했을까', 등등 군대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이상 한 번쯤은 의문을 갖고 숙고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군대에 관한 여러 가지 담론 등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나는 앞서 말한 선배와 하룻밤 동안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 '군대 or 교도소' 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도대체 왜 그렇듯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고 있지 못했을까 하는 충격에 크게 동요했던 기억이 난다. 여러 사정상 나는 군에 입대할 예정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가지 않으면 교도소 가니까 가 아닌, 다른 수많은 가능성들과 내가 처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난 다음 선택한 결정이었다.

2.

앞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체계는 일개인이 감히 저항하기 어려운 힘을 지니고 그 때문에 갖가지 스트레스를 그 원인 제공자에 풀 수 없는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주변의 눈에 보이는 타인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관련하여 앞서 이야기했던 군대에 관한 경직된 일반적 인식은 군대 문화 자체의 폭력성을 자조적으로 긍정하게 만든다는 점, 더하여 그것이 아닌 다른 가능성(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다.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어쩌면 거기서 오는 과도한 긴장을 자기 자신에게, 혹은 주변의 타인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군필자의 절대 다수는 군대를 그 자체로 긍정하지 않는다. 긍정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전시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전술을 위한 기계적인 체제의 현실적 필요성 정도의 의미에서 그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에 대해서 결코 좋게 여기지 않는데, 대체 복무 혹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일말의 사려도 없이 그토록 극단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많은 군필자들이 군 미필자들에게 가급적이면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는 식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반면, 한편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든지, 여성, 신체건강상의 이유로 현역입대하지 못한 병역대상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나는 앞서 언급한 자기증오와 이러한 문제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남아있으므로, 여기서 이렇게 짙막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정도로 글을 마친다.

군대는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가

-백승덕

병역거부를 선언한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사를 접한 네티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쪽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기사 읽고 다른 이의 생각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쪽지 드려요^^

물론 어떠한 선택을 하셔도 본인 스스로의 의지대로 행동하신다면 그 기백에 남자로서 존경 드립니다. 승덕님 저와 동갑이시군요. 전 제가 선택해서 육군 중사로 4년간 근무했으며, 지금은 공인회계사 공부중인 수험생입니다.

전 보통의 남자들처럼 의무복무가 아닌 선택복무를 실행했으며 지금도 후회 없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선택 복무를 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만큼 승덕님과 같은 자유로운 사상과 이론을 가지신 분들이 물리적 / 정신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실수 있기에 후회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평화는 아니 민주주의는 관용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은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할아버지가 새우고 아버지가 지키고 아들인 제가 당당하게 지킨 자유를 누리시며 사신 백승덕님.. 행복하세요. ”

기사에는 꽤 많은 댓글들이 달렸지만 이렇게 정중한 조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중한 조언에, 나또한 최대한 무례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답장을 보냈다. 그가 말한 진정한 자유가 아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많은 전역자들이 이 네티즌처럼 '내가 군을 갔기 때문에 내 가족과 이웃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25일 선출된 재향군인회장 역시 당선된 뒤 "정치적으로 엄정한 중립을 지키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건강하고 건전한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군 당국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국방TV 등의 자체 매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같은 홍보물을 방영하고 있다. 한국의 젊은 남성들 중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보상으로 삼아 2년여의 청춘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과연 한국의 군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을까?

사상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먼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짚고 갈 필요가 있다. 흔히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의 체제와 대비하여 자본주의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거나 혹은 반공 그 자체를 자유민주주의로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치학적 의미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의 정치이념의 보완과 갈등의 잠정적 결과로 나타나는 체제를 일컫는 개념이다. 마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것 같은 두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타협과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토대와 함께 제약도 제공했다. 이러한 타협과 갈등은 절대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완전하면서도 절대적인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적 맥락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여러 '자유민주주의들'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현실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자유민주주의들을 관통하는 공통 요소들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가 상정하는 핵심적 가정과 제도들, 예컨대 개인적 권리인 표현, 행동, 결사 등의 자유와 이에 대한 법적 보호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범위와 형식에 대한 여러 논쟁들 속에서도 이러한 사상의 자유는 일관되게 지지받았다. 특정 사상을 강요하여 타인의 사상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상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인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한국의 군대와 사상의 자유: 입영의 선택과 생활 기간

우선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남성에게) '군대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는 원천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2007년 9월 국방부에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대체복무제가 2008년 12월 전면 백지화되었다. 그에 따라 해

마다 800여명의 젊은이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처벌받아 감옥에 가고 있는 현실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사상의 자유는 군대의 문 앞에서만은 철저히 멈춰서있는 실정이다.

'군대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원천불가인 상황은 딱히 병역을 거부하지 않는 이에게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병역의 의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과 국가 간의 일종의 계약이다. 그것은 암묵적으로 국가가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다하는 대신 2년여의 시간동안 일정부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군대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아예 성립 불가능한 상황에서 '군대가 무얼 위해 존재하든' 입영 대상인 젊은이는 시간과 몸을 제공해야만 한다. "너 군대 왜 가니?"라는 물음에 황당함을 느끼는 건 이 때문이다.

입영 뒤에 군대 내에서 '사상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군대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국방부에서 23종의 도서에 '불온도서'라는 딱지를 붙인 것이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해프닝은 대표적인 예다. 금서지정 자체도 시대착오적이었지만, '불온도서'라는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대부분 그다지 불온하지 않은 면면들이었다. 특히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반미도서로 분류된 것은, 국방부의 정치적 성향이 매우 편향되었음을 고백하는 행위였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낸 군법부관 7명을 파면조치까지 하며 금서지정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훈련소나 자대에서 "주변에서 아는 사람 중 학생회, 정당, 시민단체 등에 가입된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라"는 요구나 장병 개개인의 사물함을 불시에 검열하는 등의 일상적 감시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언제나 처벌이나 불이익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문화에서는 자기 검열을 통해 운신의 폭을 좁히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렵다.

국방부 정훈공보관실에서 2002년 발표한 <기본 정훈교육-제11과 민주주의와 군대문화>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는 군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민주적 군대와 비민주적 군대의 차이는 전자가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 개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가급적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데 반해 후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그러면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나 히틀러의 나치 군대, 그리고 오늘날 공산국가의 군대 등을 들 수 있다."를 비민주적인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다. 과연 현 한국의 군대가 이들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의아하다.

물론 군대조직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일반사회와의 차이점"을 항변하는 주장도 일면 타당하다. '사상의 자유'를 기계적으로 똑같이 들이대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할뿐더러 현명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현 군 당국의 처사를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 개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가급적 최대한 보장"한다고 믿는다면 순진한 폭력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도전: 전 의경 제도

백번 양보해서 군대 내에서의 '사상의 자유'는 불가하다고 치자. "군대에 민주주의는 없다"는 맥아더의 말에 동의를 한다면 손 치더라도, 병역의 의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다는 말은 레토릭에 불과하다. 오히려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전의경제도이다.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의경에 지원하고 있고, 일부는 강제적으로 전경으로 차출되고 있다.

"(...)지엠 자동차 노동자들은 회사 건물에서 44일간 농성을 벌였다. 사측은 경찰을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구사대'를 고용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파업현장에 군대를 파병한다. 그러나 군대의 총은 시위대가 아니라 구사대와 경찰을 겨누었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파업노동자를 지키려는 것이었다. 결국 파업은 노동자의 승리로 돌아갔고, 이 사건은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두터운 중산층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마이클 무어 "사회주의 좀 하면 안 돼?"-오마이뉴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신작 <자본주의: 러브스토리>에 이런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한다. 지난여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있었던 노동자들의 농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와는 정반대이다. 공권력은 항상 사측, 재개발 조합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철거민들을 진압할 뿐이었다. 오히려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진입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대 경감이 파면되었다.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명령 불복종은 중징계감"이라는 것이 파면의 이유였다. 가진 이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명령에 의해 병역 이행이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유민주주의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셈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도전: 대한민국은 군대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군대가 직접적으로 끼치는 해악의 다른 측면은 군대조직 모델의 확대 재생산이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샌드위치 위기론은 허구다>를 통해 한국 기업의 조직 형태가 군대와 같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 기업들은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과 달리 처음부터 군대 자체를 모방하면서 자신의 조직을 만든 경우이다. 한국 전쟁 이후 박정희의 유신경제와 연이은 전두환, 노태우의 통치기간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기업조직의 모태는 대개 군대 조직에서 유래하게 되었다.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회 엘리트인 군인들을 받아들이고, 군대조직을 모방하면서 한국 자본주의를 만들어왔는데, 한국 사회에서 기업은 오랫동안 군대 그 자체였다. (중략)

현실적으로 조직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라는 문제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군대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라는 질문과 비슷하다.”

역사적 태동에서부터 군대조직을 제외하면 한국의 기업문화라는 것이 딱히 없다는 설명이다. 간혹 언론에서 “여성상위시대”니 하며 설레발을 치지만, 아직도 기업뿐 아니라 대다수의 조직에서 주요 결정권은 중년 남성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당분간도 군대 모델은 한국의 여러 조직에서 헤게모니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군대조직 모델이 개인성이나 다양성을 크게 제약한다는 점이다. 군대조직 모델은 개인 삶의 의의를 조직 이익의 차원에서 찾도록 요구한다. 이는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와는 대립할 수밖에 없다. 아 이러한 것은,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고착화되면서 기업은 더 이상 고용보장을 하지 않는 데에 비해 위기라는 명분으로 개개인에게는 “육탄으로 수류탄을 들고 탱크 위로 올라갔던” 특공대의 군인정신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을 마치며

한국의 군대가 수호한다는 ‘자유민주주의’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의 정치학적 의미와는 별 연관이 없어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것의 속살은 아직도 “반공을 국시”로 하던 냉전자유주의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커녕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앙과도 같다.

“그래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항변할 이들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는 현재의 남한보다도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낡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북한 재래식 무기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항변은 두 가지 형태의 필요성 때문에 제기된다고 판단한다. 하나는 남한이 북한 체제로 흡수 통일되는 것을 저지할 필요성, 다른 하나는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날 것이 뻔한 전쟁 자체를 저지할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두 가지 필요성에는 나 또한 적극 동감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군대와 군인정신의 강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군대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는 주장은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우선 전자의 경우, 70년대 말부터 경제성장의 규모에서 남한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해 근 30여 년 동안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해왔다. 그에 비례하여 남한의 국방비 지출 역시 북한의 대여섯 배에 이르고 있다(2000년 국방백서 기준). 북한 체제가 급속도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북한의 남침보다는 남한의 북침이 더 우려되는 현실이다.

한편으로, 몰개인적인 북한의 전체주의가 질식할 듯한 갑갑함을 준다면, 우리 사회에서 자생적인 전체주의가 싹트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한다. 당장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조차 무시되며, 그간 압축 성장으로 억눌렸던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요구에 대해 침묵을 요구하는 국가 권력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쟁 자체를 억지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등의 비군사적 평화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군사적 해법보다 현명하다 하겠다. 여기에 더 안정된 평화균형모델을 위해서는 남북 양측이 상호 인정과 균축을 통해 평화체제를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평화헌법 9조 정신을 동북아에 확장시키는 노력

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내부불만을 외부수탈을 통해 무마시키려는 때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을 상기하여, 군축과 평화체제를 통해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아슬아슬한 힘의 균형이나 압도를 통한 제압보다는 훨씬 평화에 가까운 길이다.

병역거부자 곰곰 후원모임(club.cyworld.com/gomgoem) - 병역거부자 백승덕 후원회

병역거부자 백승덕의 후원회장 윤홍민입니다.

천주교 신자로서는 두 번째 병역거부자인 백승덕은 그 동안의 병역거부자의 거부 경향과는 달리 시민 불복종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당한 권력에 대한 불복종은 결국 불의한 시대에 의인이 갈 곳은 감옥밖에 없다는 소로우의 말과 함께 그 본질적인 정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와 정의가 입을 맞추기(시편 85,11)위해 그리스도의 자기 봉헌의 의미를 본질로 하여, 시민 불복종이라는 국가권력의 부당함에 맞서는 수단을 택함으로써 신앙인과 시민으로서의 궤적을 일치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의 정신, 불의에 대해 정의를 외치며 공동선을 향하는 연대의 정신, 시민으로서 부당한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의식, 동지와 친구로서 그의 정신적, 물질적 협력과 후원을 꾀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후원회는 올해 7월 말 모임이 결성되어 8월부터는 정식 후원행사를 기획하여 입영일인 9월 7일 이를 후인 9월 9일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9월 1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생 연합회 간담회, 9월 26일 후원 미사를 진행해 왔으며 2달간의 활동 끝에 오늘의 토론회에 다다랐으며, 한겨레 신문, 시사in, 프레시안, 지금여기 등 국내 언론매체와 catholic american eyes in korea 해외 소식에 보도되는 등 활발한 후원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병역에 대해 상대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발견함을 통해 신성시되고 절대적으로 포장된 병역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단순히 이행하는 것이 병역의 전부가 아니라 그 앞뒤, 전후, 좌우에 가려진 이야기들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길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하동기씨와의 지속적인 연대와 앞으로의 토론회와 간담회가 더 진전되어 그들만의 수감으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많은 이들의 생각과 행동에 즐거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요한1,5)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가톨릭 교회의 공의회 문헌과 사회교리에서 밝히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로서의 인정”과 “대체복무 제 권고” 및 국제 사면위원회와 UN 인권위원회가 매년 끊임없이 한국정부에 요청하는 “시민의 권리로서의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와 징총거부권 인정”등 많은 징병제 국가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민의 권리가 우리 사회에도 정착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감옥이라는 공간으로 내부 망명을 떠나는 어둠의 수감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환하게 밝히는 평화의 빛으로 당당하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많이 어색한 이슈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어려운 사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자리가 적어도 서로의 차이가 인정되고, 개인의 사상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절대적인 권력이나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이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래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은행 813001-04-034064 예금주: 오세은(백승덕후원회)

질문지입니다^^ 이 장에 질문을 쓰시고 확 찢어서(?) 쉬는 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To : From : 질문내용	To : From : 질문내용
To : From : 질문내용	To : From : 질문내용
To : From : 질문내용	To : From : 질문내용